

Ciprofloxacin으로 치료한 BK 바이러스 신병증 1예

순천향대학 병원 내과학교실¹, 병리학교실²

강혜란¹, 김보영¹, 위지완¹, 김은나¹, 전진석¹, 노현진¹, 한동철¹, 진소영²

BK Nephropathy Successfully Treated with Ciprofloxacin; A Case Report

Hye Ran Kang¹, Bo Young Kim¹, Jee Wan Wee¹, Eun Na Kim¹, Jin Seok Jeon¹,
Hyunjin Noh¹, Dong Cheol Han¹, So Young Jin²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¹, Department of Pathology²,
Soon Chun Hyang University Hospital, Seoul, Korea

BK바이러스 감염은 면역억제제 투여에 의해 발생하는 기회감염으로 알려져 있다. 신장이식 환자에서 주로 이식신의 상피 세포를 침범하여 간질성 신염을 일으키며 이식 신의 기능저하를 유발한다. BK바이러스 신병증의 치료는 면역억제제의 감량과 더불어 cidofovir, leflunomide, 면역글로불린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으나 치료효과가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Ciprofloxacin을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경구 투여하여 BK 바이러스 신병을 치료한 1예를 경험 하였기에 이를 보고한다.

증례: 9년 전 말기신부전 진단 받고 혈액투석 중이던 39세 남자가 뇌사자로부터 신장이식을 시행 받고 면역억제제로 Tacrolimus, Mycophenolate mofetil (MMF), Prednisolone 복용 중이었다. 외래 추적 관찰 중 신이식 1년 5개월째 혈청 크레아티닌이 기저치 1.46 mg/dL에서 1.98 mg/dL로 상승하여 입원하였다. 소변 BK바이러스 PCR은 5.0×10^7 copies/mL, 혈청 BK바이러스 PCR은 4.32×10^3 copies/mL 였다. 소변 세포검사서 Decoy cell이 보였고 신장 조직검사서서 간질성 신염이 진단되었다. 이러한 PCR검사와 이식신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BK 바이러스 신병증에 의한 신기능 악화로 진단하였고 MMF 중단 및 Ciprofloxacin을 경구로 2달간 투여하였다. 치료 후 혈청 크레아티닌은 1.32 mg/dL로 호전되었으며 혈청 BK바이러스는 사라졌고, 소변 BK바이러스 PCR은 1.5×10^6 copies/mL으로 감소하였다.

Key Words: BK 바이러스, BK 신병증, 신장이식

BK virus, BK Nephropathy, Kidney transplantation